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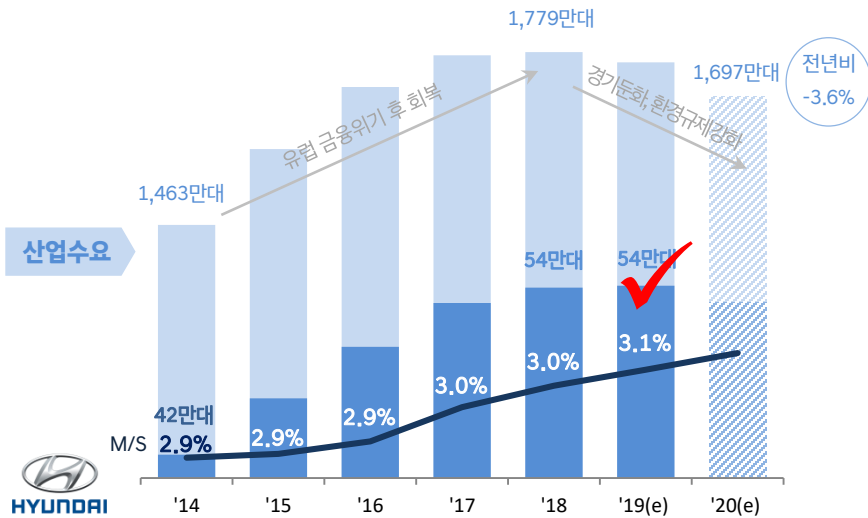
서유럽 시장 CO₂ 규제 대응 전략

2019년 10월



I. 서유럽 자동차 수요 및 현대차 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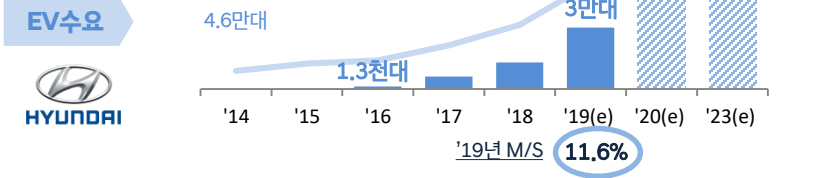
서유럽 산업수요 추이



서유럽 EV 수요 추이

■ 서유럽 일부 국가, 내연 기관 판매 금지 예정

대상 국가	적용 년도
네덜란드, 노르웨이	'25년 이후
프랑스, 영국	'40년 이후



- ▷ 산업수요, 금융위기 후 성장세 지속하였으나 '19년 이후 하락 전환
- ▷ 당사, '19년 약 54만대 판매로 M/S 3.1% 예상, '20년 동일 수준 M/S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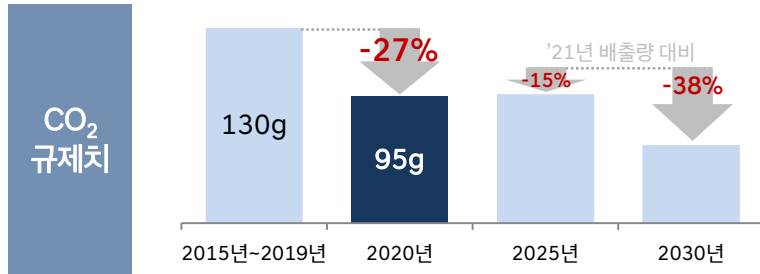
* '20년 유럽 산업 수요 전망 : 브렉시트 영향 반영한 현대차 자체 전망

- ▷ 환경 규제 강화 영향, '23년까지 전기차 수요 급격한 성장 예상
- ▷ 아이오닉 EV('16년) 및 코나 EV('18년) 런칭으로 EV 수요 대응 - '19년 EV 시장 內 M/S 11.6% 예상 (코나 EV M/S 7.6%)

* '19년 ~'23년 EV 수요 전망 : IHS 기준

II. 규제 대응 방안

규제 현황



[규제치 1g 초과 시, '19년 이후 Penalty 예상 효과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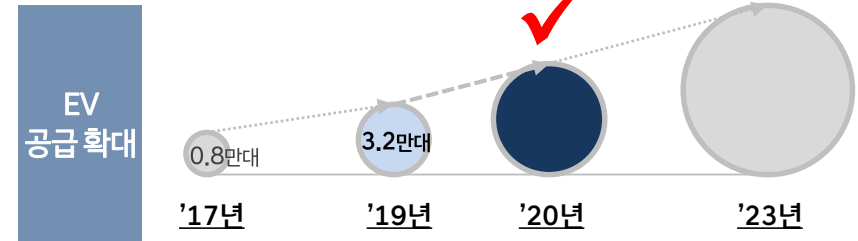
벌과금
부과
조건 강화



- ▷ 디젤 게이트 이후, 신뢰도 하락 영향 디젤 수요 감소 지속
- 내연기관 평균 CO₂ 배출량 악화 → 규제치 95g 만족 불가
- ▷ 기업 평균 CO₂ 감축을 위해 EV 판매 통한 규제 대응 불가피

* '20년, 코나 EV 1대 당 투싼 2대 상쇄, HEV 8대 당 투싼 1대 가능

현대차 대응



메이커	상품	판매	개발
VW	'25년까지 그룹내 80종 신규 EV 출시	판매비중 25%	전용플랫폼(MEB)기반 E-모빌리티 200억 투자
르노 닛산	'22년까지 EV 12종 출시	판매비중 30%	EV 플랫폼 공용화 그룹내 기술완전 공유
도요타	'50년까지 전 차종 전동화 모델로 전환	'20년까지 HEV모델 배터리/출력 옵션확대	EV개발 가속화: 기술협약 체결(마쓰다, 덴소)
볼보	'19년 이후 신차 전동화 전환	'25년까지 100만대 누적 판매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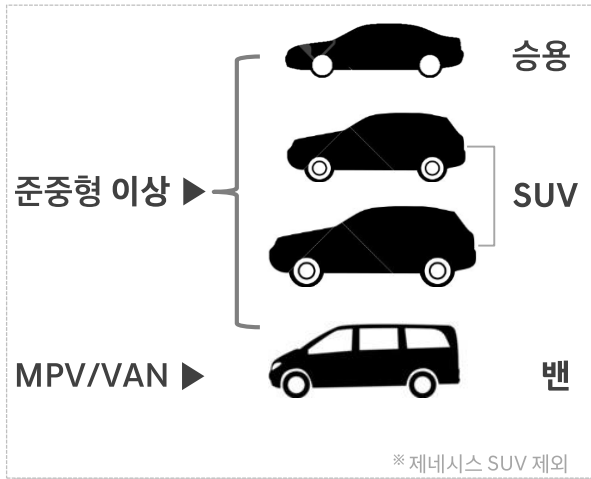
- ▷ 당사, 규제 대응 위해 '20년부터 EV 공급 확대 본격화
- ▷ 경쟁사, 규제 강화 대응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전동화 전략 추진

* 현대 '19년 연간 CO₂ 규제치는 초과 달성 예상 / 高CO₂ 재고 소진 중

III. EV 판매 확대 전략 (CO₂ 대응 전략)

상품 EV 라인업 확대

✓ [중장기 EV라인업 계획]



- 고수익 모델 (SUV / N 브랜드) 판매 기반 마련 통한 수익 확보 지속

공급 EV 공급 극대화

- ✓
- 다각적 중장기 공급 확대 방안 추진
 - 규모의 경제 형성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
 - 배터리/EV 주요 부품 공급망 완성



- 공급 안정화 기반 판매·점유율 확대
 - ▶ EV 선도 메이커 이미지 구축

판매 친환경차 전용 판매 채널 구축

- 대도시 중심 친환경차 전용 쇼룸 구축
 - 친환경차 전시 / 시승 체험 확대
 - 전력회사 파트너십 통한 패키지* 제공 (*가정용 Wall box / 공공 충전기)
- 고속충전 'IONITY' 투자 통한 서비스 품질 차별화
 - 낮은 충전 이용료 및 전용 공간/예약 서비스 등 제공
 - 주요 고속도로 내 400개 고속충전소 구축 ('20년)
- 팬유럽 차원 모빌리티/플릿 판매 확대
 - 정부 기관, 글로벌 기업 등 대형 플릿 업체 입찰
 - 개별 국가별 중소 우량 플릿 업체 발굴 지원

EV 시장 선점 통한 “친환경 브랜드” 이미지 제고 및 “미래 지속 성장 기반 확보”

이 종목의 더 많은 IR정보 [확인하기](#)

IR GO 주주와 기업을 연결하고 응원합니다.